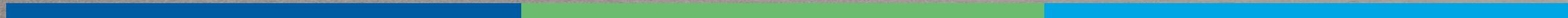


경남도립거창대학 국립대전환 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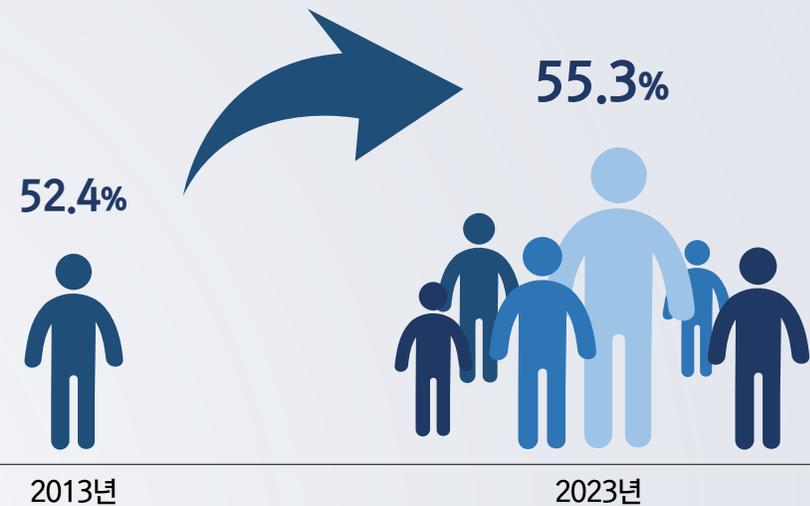


→ 현 실태

· 학령인구 감소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심화

→ 비수도권 대학 소멸 압력 가중



· 입학자원 감소 20년 후 도내 대학(22개) 중 상당수 생존 불가

'23년 도내 대학 입학자원(고등학교 졸업생) 약 3만명, 20년 후에는 1만3천명 수준(56% 대폭 감소)

→ 도내 3개 대학 중 2개 대학 폐교 직면



→ 현 실태

· 도심 지역 중학교 통합 사례 창원봉림중 · 봉곡중

경남신문

경남신문 2024. 10. 23. 조간 中

학생 줄어 도심학교도 통폐합... 창원 봉림중, 봉곡중과 합친다

2015년 572명서 현재 115명 재학 내년엔 학생수 100명 아래로 '뚝' 인근 학부모 88.1% "통폐합 찬성" 경남교육청, 2026년 3월 통합 예정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창원 도심학교도 통폐합이 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창원시 의창구 남녀공학인 봉림중학교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오는 2026년부터 봉곡중학교에 통합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봉림중학교는 2015학년도 18개 학급에 572명으로 운영했으나, 현재는 학생 수 감소로 7개 학급에 학생 115명이 재학 중이며 내년에는 학생 수가 100명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오는 2026년부터 봉곡중학교와 통합 예정인 창원시 의창구 봉림중학교 전경./전강용 기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학생 수 31명밖에 되지 않았다. 봉곡중은 지난 1992년 12학급 619명으로 개교해 30년 동안 총 9071명이 졸업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7월부터 봉림중학교와 봉곡중학교 인근 초등학교 학부

모를 대상으로 학교 통폐합의 필요성과 지원금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봉림중학교 통폐합 찬반을 물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찬반 설문 조사 결과, 경남교육청 통폐합 기준인 60%를 넘는 '88.1%'가 통폐합에 찬성해 통폐합을 진행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봉림중학교 통폐합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1년을 거쳐 2026년 3월에 봉림중학교를 봉곡중학교와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유예기간에 통합학교인 봉곡중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두 학교 간 안정적인 통합 교육 과정 운영과 학생 간 이질감 해소를 위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현재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기준에 따르면 통폐합을 하기 위해 읍지역은 학생수 30명 이하, 도시는 60명 이하여야하고, 투표에 참여한 학부모 찬성 비율이 60%이상이어야 한다. 경남 수부도시인 창원에도 학생수 감소로 지난 2017년 구암중과 구암여중이 통합해 남녀공학이 됐고, 진해여중과 진해중학교도 통폐합이 결정돼 내년 통합학교가 되는 등 통폐합 학교가 늘고 있다. 류해숙 학교지원과장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 학교는 통폐합을 통해 학교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 통합배경

■ **도비 지원 증가** 전국 유일 도립대 2개 운영, 예산지원 가중

※ 거창대 : '13년 41억원 → '23년 117억원(3배) / 남해대 : '13년 38억원 → '23년 97억원(2.5배)

■ **입학정원 감소**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입학정원 지속 감소

※ (입학정원) 거창대 : '13년 500명 → '23년 354명 / 남해대 : '13년 440명 → '23년 350명

■ **도립대 경쟁력 약화** 입학 경쟁률 하락, 중도이탈·만학도 증가

▶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전문대학 평균 경쟁률(6:1)에 비해 현저히 낮음

※ (거창) : ('21년) 4:1 → ('23년) 3.3:1 / (남해) : ('21년) 3.5:1 → ('23년) 2.9:1

▶ 만 25세 이상 성인학습자 급격한 증가, 산업 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기능 약화

※ (거창)(341명) : ('21년)입학생 69명, 20% → ('23년)입학생 153명, 44% ('24년)재학생 394/883명(44.6%)

→ 통합배경

- 이런 상황 속에서 거창대학은 과감한 대학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만 했고, 대학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글로벌사업 연계 국립대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 함
- 2026년까지 지방대학 30곳 글로벌대학 선정 예정이며, 미 선정교 폐교 위기 또는 부실 대학 인식

■ 전국도립대 통합 추진 현황

전국도립대 7개교 중 충남도립대를 제외한 6개 대학에서 통합 추진 중

- 교육부 승인(1개교) : 안동대-경북도립대
- 통합 추진중(4개교) : 목포대-전남도립대, 강원대-강원도립대,
창원대-거창대, 창원대-남해대
- 충북도립대('23년~) : 연간 180억원 투입 타 대학과 통합 또는 폐교 의견

주요 추진경과

글로벌대학30 선정을 위한 국립창원대↔도립대(거창·남해)통합 제안

'24. 1. 30.

경상남도 주관 창원대-양 도립대학 통합실무 회의

'24. 2. 5.

거창군 주관 「지관학 통합 상생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24. 2. 8.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및 글로벌대학 성공을 위한 방향 설명(거창군, 거창군의회, 대학)

'24. 3. 15.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대상 글로벌사업 및 대학 통합 설명회 추진(박민원 창원대 총장 설명)

'24. 4. 25.

하반기 도의회 기획행정위 방문 현안 보고(박민원 창원대 총장)

'24. 7. 15.

국립창원대학-양도립(거창,남해)대학 통합 추진 찬반 투표

- 투표 참여율 : 교원 83.3%, 직원 78.7%, 학생 42%, (투표 결과 찬성 82.3%)

'24. 7. 18.

국립창원대-도립대학(거창,남해) 통합 설문조사 실시

'24. 9. 27 ~ 10. 8.

道 주관 국립대학 전환을 통한 혁신방안 설명회 (지역민, 대학 이해관계자 등)

'24. 10. 16. ~

4. 독립대 특성화 방향

특성화 방안

경남 서북부 지역산업과 연계한 항노화, 드론 등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지역정주형 항노화 휴먼케어 전문인력 양성

**간호 · 항노화 · 드론+미래방산스마트
제조 기능인력+보건의료분야 특화**

※ 학생규모를 통합 전과 동일하게 유지, 학과 및 정원 조정 필요 시 새로운 교육수요 반영 및 道 사전협의

국립대 전환 이점

- 거창대학이 국립대(단일 브랜드)로 전환함으로써 학생 모집·충원기회 확대, 학습자원 공유와 함께 인지도 상승으로 재학생 자긍심 고취 및 학업향상 효과 기대
- 복수 전공 및 학사 · 석사 · 박사 과정에 대한 전환 용이, 전과 및 편입에 대한 선택 다양화
- 국립대 국가경비 지원으로 우수교원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풍부한 기자재 등 인프라 이용 가능
- 재학생 여름캠프, 겨울캠프 등 거창, 남해 개설 · 개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 국립대학-사립대학(승강기) 유치로 인한 브랜드 효과 기대

통합대학 道 지원계획

01
)

**2~4년제 병행으로
학사와 전문학사
과정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학 제 » 고등교육법」개정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구
특례 활용으로 2~4년제 병행

➔ **교육부**

국·공립 통합대학이 학사·전문학사 과정 병행 운영
가능토록 「고등교육법」개정 추진

➔ **추진방향**

법 개정 전제로 통합 신청 및 심의 진행 및 법
개정 지연 시, 고등교육혁신특화지구 특례 활용

02

경남도립 거창대학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거창대학이 국립대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거창대학
지속적 존속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추진방향

- ① 통합 후 거창대학 학생규모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인위적인 학생정원규모 축소조정 없음)
- ② 창원대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한 지자체
· 양 도립대 교직원의 대학 평의원회 참여
- ③ 부총장 제도를 신설하여 지역사랑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는 자 중 캠퍼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수 또는 개방형 공모제도로 선발

03
)

지역 입학 학생 등록금과 장학금 혜택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입학 학생 등록금 및 장학금 등 혜택 유지 방안 마련

➔ 추진방향

- 1 거창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
- 2 現 장학제도 유지, 이후 장학제도는 교육수요 및 재정상황 등 고려해 결정, 필요 시 道 지원 검토



04
☺

통합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통합대학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 추진방향

- ① (RISE사업 연계) 거창 지역산업 특성화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속 지원 (평가주체 경상남도)
- ② (지원 조례) 도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등 지원체계 마련

➔ 통합대학 개교 : '26.3월(목표)

경남도립거창대학 특성화 방안

특성화계획

- **학생정원**

-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3개 학부 학사구조 개편으로 지역 산업 특성화**

항노화휴먼케어학부

- 경남 서북부권 항노화, 공공의료 인력수요 대응

드론융합학부

- 첨단 드론 기술 활용 서북부권 스마트 농산업 인력 양성

미래방산스마트제조학부

- 道 전략산업 방산, 스마트제조인력 수요에 대응

특성화계획

• 2026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안)

- 학과 수 : 7학부 3학과 1전공 → 3학부(9개 학과)

2025학년도	
모집단위(학과명)	
건축인테리어학부	건축인테리어전공 건축공학전공
드론토목학부	
항공정비학부	항공전자전공(2년) 항공정비전공(3년)
소방전기학부	
미래자동차공학부	
간호학과(4년제)	
뷰티웰니스과	
스포츠재활운동관리과	
스마트귀농귀촌학부	
사회복지보육학부	
자율전공(무전공)	

2026학년도(안)		
학부명	모집단위	전공명
간호학과		
항공노화휴먼케어학부	뷰티웰니스과	뷰티웰니스
	스포츠헬스케어과	스포츠헬스케어
	사회복지보육과	사회복지보육
	스마트귀농귀촌과	스마트팜 스마트가드닝
드론융합학부	건축·인테리어과	건축인테리어 건축공학
	드론토목과	드론토목
	드론소방전기과	소방전기
미래방산스마트제조학부	미래방산	미래자동차 방위산업융합
	스마트제조	스마트기계전자 스마트제조자율

※ 학사개편은 임의안으로 통합심의회나 입시요강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 항노화·첨단농업·제조 분야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 2024년 최초 유학생(중국) 8명 유치 → 2025년부터 매년 30명이상 유치

• 경남 서북부 4개군 지역정주 외국인력 교육 추진

-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 등 지원으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 외국인력 장기체류 지원 강화를 통한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 2024년 4개군 한국어교육 56명

→ 2025년 한국어교육 **100명** 교육 추진

* 2024년 거창군(20명), 함양군(9명), 합천군(12명), 산청군(15명)



대학과 지역의 상생구조 확대

- 지역 축제 부스 운영 및 지역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관학 통합 상생협의회」 지속 운영
- 지역 고교 대상 국립대 인기학과 진로체험 교육 (교과목 사전 수강, 진로지도 등)
 - ※ 거창 주요 고교(거창고, 거창여고, 대성고 등) ← 창원대 인기학과(컴퓨터공학, 전자공학 등)
- 서부경남 산업중심 마이크로디그리(소학위) 강좌 개설을 통한 지역 정주 전문기술인 양성
- 창원대-도립대 재학생 공동 프로그램 운영
 - 통합대학 재학생 공동캠프 실시 및 교류프로그램 운영
- 거창군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따른 지역 우수 인재 양성 및 정주 교육모델 구축 공동 대응



꿈과 희망 / 미래가 있는 대학

질의 · 응답



경남도립거창대학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대학



꿈과 희망 / 미래가 있는 대학

감사합니다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대학

